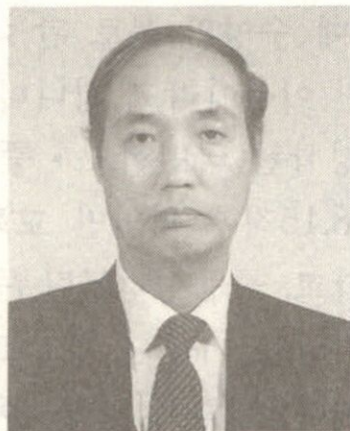


새로운 인성의 역사 창조



중 교장 조 창 호

「仁聖」이 백합화로 상징되는 까닭은 이처럼 청초하고 고상한 향기를 풍기는 인성인이 되라는 기대와 바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학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곳 웅봉산 기슭에 심겨진 한송이의 백합화가 어느새 온 누리에 편만(遍滿)되어 있음을 볼 때, 어두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구실을 하는 인성인의 면모를 보는 것 같아 무한한 감회와 자랑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에 민족 복음화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학원 선교에 평생을 바친 설립자 故 이기혁 목사님, 그 분의 설립 정신을 잇고자 학교 경영에 혼신을 다한 역대 이사장님들과 모든 이사님들, 끊임없는 기도로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 제일교회 교우님들, 교육 일선에서 건학 정신을 구현하고자 책임과 사명을 다 하신 선배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단합된 힘으로 오늘의 인성을 이끌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동문들 모두에게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인성 40년의 결실은 여러분들의 것이며, 여러분들의 자랑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고난에 찬 역정을 거치면서도 건학 정신을 끝까지 견지하며 구현하고자 애쓴 여러분들의 뜻과 정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더 큰 자랑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건학 정신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인성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좀

더 정성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물음이 있습니다. 이 물음은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해 꼭 있어야 할 여성교육의 전당으로서만이 아니라 특색있는 명문 사학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한 앞으로 50주년 60주년의 찬란한 仁聖의 역사와 전통을 재창조한다는 각오와 결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성이 오늘날과 같은 교풍과 전통을 가지기까지 지난 40년 세월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달려오는 동안 그 본래의 순수한 뜻과 정신이 과연 조금도 변질됨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또 하나의 40년을 바라 보면서, 지나온 40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새삼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인성학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루어야 할 목표도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륜 안에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모을 것을 마음 속에 다짐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고로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상에다 결국 무너져 없어질 거대하고 화려한 역사를 건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화려한 인간의 우상이 빚어낸 지상의 역사보다는 마음 속에 생명이 약동하는 충실한 역사의 건설을 더 중시하고 이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이 또 그렇게 면면이 이어져가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성학원을 통해 진정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표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 모두 40년 동안 다져온 저력을 발판으로 단합된 의지로써 대인성의 역사적 중흥과 새로운 도약을 꾀합니다.

끝으로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되는 이 교지가 인성의 모습 그대로를 비추주는 거울이 되고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까지 인성학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내외 모든 분들과 인성 가족 여러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